



민 호남특위, 당대표에 현안·과제 보고... “특별한 보상을”

AI 영재고·군공항·RE100 산단·국립 의대 등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과 광주 군공항 이전, RE100 산단 조성 등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현안과 당면과제를 정례 당대표에게 공식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21일 호남발전특별위는 전남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호남발전전략보고회를 열고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전략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호남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기조와 정 대표의 “호남의 송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나게 보답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지난 8월 민주당 상설 특별기구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역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호남의 숙원사업·미래 아젠다를 마련해왔다.

이날 제시된 호남발전전략은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시·도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의 지역 현안과 미래성장 사업, 특위가 발굴한 주요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당면 사업은 5·18대표 사적 국가주도 보존·활용과 AI 영재고 광주 설립, 미래 모빌리티 기반 구축 등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초광역 협력사업인 RE100 첨단 산단 조성, 영·

호남 달빛철도, 국립 의대 신설 등은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정책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호남 등 비수도권의 지방 재원을 확대하는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에서 27%로 확대하고, 중앙·지방의 소비세율을 7.5대 2.5에서 5.5대 4.5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500억원(국비 900

억원)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소멸 지역의 예타 면제 근거 신설,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대 등도 함께 제안했다.

서삼석 호남특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관심과 애정이 호남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국가 균형 성장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일컬어지는 호남의 경제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호남특위가 출범했다”며 “호남특위에서 건의한 과제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예산, 정책, 법안으로 반드시 구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계를 넘어 호남발전 전략이 국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지면 안 내

- ▶ 정청래 “공천권 내려놓겠다”... ‘당원주권’ 경선 재확인 3면
- ▶ ‘휴대폰 만짓’ 무인도 돌진, 여행선 항해사조타수 영장 9면

광주 서구 마륵공원 시민 품으로

민간자본 940억원 투입 17만7000㎡ 명품 숲공원 조성
3.7km 광주 최장 맨발길·모험놀이장·피크닉장 등 갖춰
114면 주차장·다목적강당 등 3층 규모 주차복합건물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서구 백석산 일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마륵근린공원 조성, 21일 개장했다.

‘마륵근린공원’은 공원 지정이 자동 소멸될 우려가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광주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부지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부지 전체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한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사업이다.

마륵근린공원은 토지매입비, 공원

공사비 등 총 940억원(잠정 집계)을 시비 투입 없이 전액 민간자본으로 완성했다.

약 17만7000㎡(축구장 약 25개)에 이르는 산림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켜 시민들에게는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숲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됐다.

3.7km에 이르는 산책길은 일반 코스로도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전용 맨발길도 함께 조성됐다. 이 맨발길은 광주에서 가장 긴 구간이다.(2면에 계속)

/전광훈 기자

김영록 지사,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적지 전남 나주시로”

21일 공모 발표평가에 직접 PPT발표 나서 강력한 유치의지 피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공모 발표 평가’에서 직접 발표자로 나서 등 강력한 유치 의지와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세계를 밝히는 인공태양, 전남이 꿈꾸고, 나주에 품다”는 슬로건으로 약 1시간 동안 열정적 프리젠테이션을 펼쳤다.

특히 “나주는 부지 안전성, 확장성, 산학연 역량, 정주 여건, 주민 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임을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남도가 제안한 나주 후보지는 화강암 기반의 평탄하고 안정적 부지로서 지난 50년간 지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이력이 전무해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정부가 요구한 기본 부지 50만㎡의 2배가 넘는 100만㎡ 이상 제공이 가능하고, 연접한 에너지 국가산단 등 주변으로 추가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인근 실거주자의 100% 동의를 얻었고, 12만 나주시민 전체 지지 서명을 확보하는 등 전국 최고의 주민수용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조기 건설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제

시했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는 핵융합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를 구축 중으로, 향후 핵융합 실증·핵심소재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한전 등 700여 에너지 기업이 집적화된 연구·산업 생태계 역시, 타 지자체의 추종을 불허한다.

접근성과 정주 여건도 뛰어나다. KTX 나주역 7분, 무안국제공항 30분 등 접근성이 뛰어나며, 나주혁신도시와 광주권의 우수한 의료·교육·문화 인프라를 모두 향유할 수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진정한 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핵융합”이라며 “정부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시작으로 핵융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전남 나주에 유치되면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모 당시, 정부가 전남의 유치 노력과 진정성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 때문에 후속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전남 지원을 약속했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염선호 기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솔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